

2025 제 1 회 길미국제신경제대회 장춘서 개최



8월 13일, 2025 제 1 회 길미국제신경제대회 (吉美国际新经济大会)가 길림성 장춘시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길림성상무청과 길림성약품감독관리국의 지도 아래 중국미용미발협회가 주최하고 길림성미용미발화장품산업협회가 주관하였으며 장춘시미용미발화장품산업협회가 협력했다. 행사에는 국내외 업계 관계자, 기업가, 브랜드 대표, 기술전문가 및 뷰티산업 (美业) 종사자 등 총 1,000 여명이 참석해 뷰티산업 신경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업계의 혁신과 성장 도모를 모색했다.

개막식에서 길림성상무청 당조 성원 겸 부청장 려계위는 축사를 통해 “길림성은 소비 업그레이드와 경제 발전에서의 뷰티산업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정책 지원 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여 뷰티산업 디지털 경제와 건강산업의 융합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길림성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처 류파처장이 “감독관리 면에서 업계 표준을 강화하고 화장품 품질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 소비자들에게 더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춘시의 지역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했다. 장춘대의개방합작시범구관리판공실 양진 주임은 국제 협력 관련 우세와 현황을 소개하며 “중한시범구는 2020년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설립된 국가급 개발구로서 중한 량국 뷰티산업 기업들에 플레

트후 정책 지원과 크로스보더 (跨境) 무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구는 중한 뷰티산업 협력을 ‘점 대 점’ (点对点) 교류에서 ‘전체 사슬’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덧붙였다.

중국미용미발협회 당덕고 회장은 업계 시각을 바탕으로 한 연설에서 “뷰티산업은 서비스 소비의 핵심 분야로서 시장 동향을 가장 예민하게 포착하는 ‘신경 말단’이자 경제 활력과 소비 자신감을 구현하는 ‘청우계’ (晴雨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뷰티산업 종사자들은 ‘불에 강물이 풀리는 것은 오리가 먼저 안다’와 같은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신감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국가 정책 혜택과 소비 전환에 따른 광활한 시장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림성미용미발화장품산업협회 회장 양철은 “행사 주최측으로서 우리는 ‘개방포용, 혁신선도’를 목표로, 길림성 뷰티산업의 우세를 바탕으로 중한 기술 표준 협력을 가속화하고 지역 브랜드의 국제화를 육성하여 글로벌 뷰티산업 발전에 길림의 지혜를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중도시우호협회 권기식 회장은 축사에서 “이제 뷰티산업의 주도권은 서구에서 한중일 등 동아시아로 옮겨오고 있다.”며 “길림성과 장춘시가 세계 뷰티산업의 슈퍼 도시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정부 · 기업 · 업계 협력해 뷰티산업의 새로운 미래 모색

— 길림성미용미발화장품산업협회와 한국 K-미용협회, 중한 뷰티산업 표준 상호 인정 및 기술 교류 협력 협약 체결

인재에 집중, 업계의 새로운 역량 육성

행사 기간 길림성상무청,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길림성총공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길림성상업금융서비스업공회와 길림성미용미발화장품산업협회에서 공동 주관한 ‘길림성 제 5 회 뷰티산업 직업기능경기’가 열렸다. 이번 경기는 로동모범 정신과 장인 정신을 고취하고 기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며 고기능 인재를 발굴·육성함으로써 길림성 및 전국 뷰티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길림성총공회 당조 성원이며 경영비용심사위원회 주임인 장복신은 경기 개막식에서 “직업기능경기 행사는 인재를 발견하고 선발하며 격려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길림성총공회는 뷰티산업 기능 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협력, 국제 발전의 새로운 장

행사 현장에서 중한시범구와 길림성미용미발화장품산업협회가 전략적 협력을 맺고 뷰티산업 국제화 발전을 위한 실험구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한중도시우호협회길림성지회 설립 헌판 수여식이 진행, 길림성미용미발화장품산업협회 양철 회장이 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특히 길림성미용미발화장품산업협회와 한국 K-미용협회가 중한 량국간 뷰티산업 표준 상호 인정 및 기술 교류를 위한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 손맹빈 김명준 기자

길림성—강원도, 스포츠 교류로 우정 다져

일전, 한국 강원특별자치도 체육과 과장 강선구가 이끄는 대표단 15 명이 길림성을 방문해 체육 관련 교류를 진행했다.

대표단은 방문 기간 길림성체육국 중경기 (重竞技) 운동관리센터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길림성 력도 선수들과 함께 현장 훈련을 진행했다.

량측은 력도 기술 동작, 체력 훈련, 훈련

기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교류는 물론 학습을 통해 기술력을 높이고 우정을 돈독히 하였다.

대표단은 이번 길림 방문에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켰다며 앞으로 길림성과 강원도간 체육 분야 교류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길림성외사판공실

한중도시우호협회장 권기식 길림신문사 방문해 간담회 진행

8월 12일, 한국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 권기식은 중한 (장춘) 국제협력시범구 대건강산업원 왕학의 안내하에 길림신문사를 방문하고 길림성과 한국간 우의 증진, 협력가능성을 두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유창진 부총편집은 “권기식 회장은 다년간 중한 관계의 깊은 이해와 전문성으로 량국 관계 이해 증진에 전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길림신문사도 해외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한 량국의 문화, 교육, 경제 등 교류에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길림신문사는 한중우호도시협회와 함께 길림성과 한국간 활발한 교류를 위한 미디어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중도시우호협회장 권기식은 “길림신문사는 단순한 뉴스 전달을 넘어 량국의 상호 이해와 인문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특히 량국간 중요한 ‘정감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년 만에 장춘을 찾았는데 도시건설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크다. 또한 현재 신에너지, 과학기술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길림신문사가 앞으로도 중한 관계 발전에 있어 전파자의 역할을 굳건히 지켜나가기를 바라며 한중도시우호협회도 길림성과 한국의 교류 협력에 힘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김명준기자



중한 협력 프로젝트

펠리스그룹 (주) 커피전문기업



하여 구체적인 협상 및 상담을 진행하기 바란다. 전문 상담을 통해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협력 회사 소개

펠리스그룹 (주)은 공식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커피전문회사이다. 기업은 현재 Feliz (에스빠냐어로 ‘행복한, 즐거운’)라는 상품 브랜드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제품은 엄선된 좋은 원두를 블렌딩 (混合)한, 건강을 고려한 식물성 프림 (植物奶油)으로 구성된 달콤한 믹스커피이다.

카페펠리스 모카골드

- 강렬한 향과 깔끔한 맛의 커피 커피의 비률을 높여 깊고 진한 맛과 향을 높이고 커피의 텁텁한 끝맛을 잡았다.
- 낮은 온도에서도 빠르게 녹는 커피 커피 알갱이를 작게 분쇄하였기에 낮은 온도에서도 빠르게 녹을 수 있어 드실 때 더욱 편하다.
- 직접 류통 방식의 착한 가격의 커피 라이선스 (许可证) 지불 없이 직접 제휴 방식 (直接合作的方式)을 통해 중간 류통마진 (流通利润)을 줄였다.

/ KOTRA 장춘무역관

중한시범구, 중한 농업 협력 심화 추진

일전, 중한 (장춘) 국제협력시범구 (이하 ‘중한시범구’) 당사업위원회 부서기 겸 관리위원회 주임 탕대봉이 팀을 이끌고 연길시를 방문하여 한국 농업축산식품부 전임 부부장이자 현 한국해외농업협회 회장인 이상무와 면담을 진행하고 길림성상황생물과학기술그룹유한회사 및 화룡시원지채소유한회사를 찾았다.

이상무 회장은 한국 농업축산식품부에서 재임하던 시절 한국 농업 현대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국제간 농업 분야 협력을 추진해왔다. 방문 기간 중국인민대학 농업및농촌발전학원 교수 김홍운과 중미록색기금 파트너 손진상도 동석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전면적 협력 업그레이드, 무역통로 확장, 정기적 상호 방문 메커니즘 구축 등 3대 협력 방향을 논의

했으며 농업 협력과 무역 투자의 심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의향을 달성했다. 이상무 회장은 한국해외농업협회는 정책 조정과 기업 자원 우세를 통해 협력 프로젝트의 실행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탕대봉은 이번 교류는 중한시범구의 대한 농업 협력이 단일한 무역에서 ‘기업 + 산업 + 무역 + 자원’의 다원적 융합으로 나아감을 표시하며 동북아 농업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탕대봉은 길림성상황생물과학기술그룹유한회사 시찰 시 상황은 약식동원 (药食同源)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중한시범구에 상황소분자 (桑黄小分子) 추출 프로젝트가 들어올 경우 중한시범구의 대건강산

업에 높은 시너지를 낼 뿐만 아니라 기업에 더 많은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중한시범구의 새로운 경제성장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탕대봉은 화룡시원지채소유한회사 시찰 시 기업이 중한시범구에서 진행중인 김치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중한시범구의 대외 협력 우세를 발여 기업의 판매 경로 확장을 적극 지원해 상생협력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표했다.

이번 연길 방문은 중한시범구에서 한국 기업과 현대화 재배기지 및 녹색농산물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데 토대를 마련하고 산업 프로젝트 발전에 효과적인 기여를 했다.

/ 중한 (장춘) 국제협력시범구

